



## 역사를 통해 인간 삶의 전반을 탐구하다

1946년 8월 15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민족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사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한때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사학과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60~70년대에 배출된 졸업생들이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9년 사학과는 한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의 3개 학과로 나누어졌다가, 2004년 3월 동양사학과와 서양사학과를 통합, 사학과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사학의 경우 한국사학과가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과거를 탐구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올바른 미래를 설계하라

‘사학(史學)’이란 역사를 학문적 입장에서 고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무엇일까요?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역사는 ‘과거’라는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지식의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 인간 생활에 대한 지식의 총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한창 달리는 중에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애물을 잘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백미러로 뒤를 살핀 후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듯 ‘과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탐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과거의 사실들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사학의 엔진

#### 끊임없이 탐구하여 진실에 접근하라!

옛날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5명이 처음으로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님들은 그 곳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코끼리’라는 동물을 만납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장님 5명이 판단한 코끼리의 모습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한 장님은 코끼리의 코만을 만져보고 긴 물 호스같이 생긴 동물이라 판단하고,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기둥처럼 생긴 동물이라 판단하죠.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는 넓은 보자기 같은 동물이라고 하고, 이어 다른 장님들은 코끼리의 상아와 몸통을 만지고는 각각 뿔을 닮은 동물, 커다란 벽 같은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장님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장님들이 만져보는 코끼리의 여러 부분은 사료(史料)이고, 코끼리 자체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사학은 이처럼 제한된 과거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장님들처럼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코끼리라는 ‘진실’을 찾기 위해, 코도 만져보고, 귀와 다리, 상아와 몸통까지 만져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져본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코끼리’라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탐구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 이런 학생 사학과에 딱!!

- 세계사, 국사, 한국 근현대사 시간이 가장 재미있다.
- 평소 역사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
-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 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풍부한 독서를 즐긴다.
- 각종 자료나 학술 등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사고와 상상력을 지녔다.

## 전공수업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역사에 대한 탐구로

역사에 대한 기본 이해, 역사학개론 역사관의 유형, 시대구분의 원리, 역사인식이론, 사료 연구방법과 비판론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역사적 사고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양사, 서양사입문을 통해 동양사와 서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사 탐구를 위한 준비 동양사 사료선독, 서양사 사료선독 동양사, 서양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를 선정하여 사료독해능력과 분석능력을 키우고 사료를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 세계각국의 역사(예를 들어 중국사, 일본사, 인도사, 미국사, 러시아사 등), 시대구분에 따른 역사(예를 들어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등)를 탐구합니다.

## 학과목에 대하여

### 전공 1학기

**HOEW 201 역사학 개론** 역사관의 유형, 시대구분의 원리, 역사인식이론, 사료 연구방법과 비판론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역사적 사고를 정립하고자 한다.

**HOEW 202 동아시아사 입문** 동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동양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HOEW 305 중국문명과 제국체제**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특별 프로그램

**국제 교류 프로그램**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려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은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역사학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영어강의 사학과는 전공강의를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한국인의 눈으로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답사** 사학과는 매년 정기답사활동을 합니다. 동기들과 직접 역사유적지를 둘러봄으로써 역사공부와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기들과의 우정도 끈끈해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 외국인 교수 초빙** 매 학기마다 외국인 역사학 교수 1명 이상을 객원교수로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국제교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 미리보는 사학

###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 **까치글방(까지)**, 2007

61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는 역사학도의 필독서입니다. 에드워드 카가 열어놓은 새 지평은 역사가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하는 한편 역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유홍준. **창비**, 2011

간접적으로나마 문화유적지를 답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입담과 필치 또한 뛰어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HOEW 307 중국 근세사** 송·원·명·청 시기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근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HOEW 311 서양 고대사**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정치, 경제적 삶의 커다란 윤곽을 파악하고, 아울러 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들을 검토한다.

**HOEW 313 서양 근세사** 르네상스·종교개혁 시대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의 근대 사회의 형성 과정을 개관한다.

**HOEW 315 서양 최근세사**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을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들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고찰 속에서 정리해 본다.

**HOEW 365 독일문화사** 게르만민족 이동기부터 현대까지의 독일 역사를 개관하면서 유럽사 속에서 독일의 위치와 역할 및 의미를 정리해 본다.

**HOEW 367 미국문화사** 미국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개관하되 특히 현대사의 위상을 살피는 데 역점을 둔다.

**HOEW 401 일본사** 일본역사의 전시대를 개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를 참조함으로써 일본사에 대해 이해를 높인다. 이와 같이 일본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적 특수성이라 보여지는 현상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HOEW 403 인도사** 인도사에서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밀도 있는 강의를 한다.

**HOEW 409 동아시아 현대사** 중화민국 수립 시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HOEW 411 중세교회와 세속문화** 서양에서 봉건제의 다양한 형태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OEW 417 서양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1차 대전부터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역사를 강의한다.

### HOEW 421 중국사 특강

중국의 역사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중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 HOEW 431 서양사 특강

서양사 가운데서 선택한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 HOEW 450 중국 문화사

중국의 역사를 시대별 문화적 변화와 차이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HOEW 451 중국 사학사** 사(史)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중국의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중국사학의 발전과정을 강의한다.

**HOEW 457 내륙아시아와 중화세계** 내륙 아시아 유목민의 역사를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조명한다.

**HOEW 458 동아시아사 세미나** 동아시아사의 중요한 문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 전공 2학기

**HOEW 204 서양사 입문** 서양사의 전 시대를 개괄하여 서양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HOEW 306 중화제국의 분열과 통일**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당대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HOEW 308 동아시아 근대사**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 시기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최근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HOEW 312 서양 중세사** 중세문명의 신비를 푸는 데 열쇠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세문화의 주요한 흐름을 파악한다.

**HOEW 314 서양 현대사** 19세기의 70~80년대 이후, 적어도 1960년대까지의 서양현대사를 개관한다.

**HOEW 352 일본 근대사** 근현대 일본의 역사적 흐름을 기초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HOEW 363 영국 문화사** 앵글로-색슨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영국사를 개관하면서 특히 튜더시대 이후에 주안점을 둔다.

**HOEW 364 프랑스 문화사** 프랑스사의 형성기 이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개관하면서, 그 특성을 밝힌다.

**HOEW 366 러시아 문화사** 러시아의 역사를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 개관한다.

**HOEW 402 동남아시아사**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타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포함된다. 본 강의는 10개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HOEW 404 이슬람 문화사**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문화사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밝힌다.

**HOEW 406 한중 관계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중관계를 개관하되, 특히 근세 이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HOEW 412 오리엔트 문명사** 근동지역의 고대문명의 정치사와 문화사를 개관하되, 그것과 서양의 고전고대와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HOEW 416 19세기 유럽사회사** 서양사상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개관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연원과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국가정치사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HOEW 418 과학혁명과 근대사회의 형성** 17세기 과학혁명을 중심으로 근대사회의 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HOEW 420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중국공산주의혁명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를 검토하여 중국공산당에 의해 운용되는 오늘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HOEW 422 중국사특강II** 중국의 역사를 특정 왕조 또는 시기를 중심으로 집중 강의함으로써 중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HOEW 432 서양사특강II** 서양사 가운데서 특정한 시대를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HOEW 454 일본사 특강** 일본사의 중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HOEW 459 동아시아사 사료선독** 동아시아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를 선정하여 사료 독해능력과 분석능력을 키우고 사료를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HOEW 462 서양 혁명사** 서양사상에 있었던 여러 혁명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및 그 영향의 역사적 의미를 밝힌다.

**HOEW 466 서양사학사** 고전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양역사서술의 실재를 개관하면서 역사학 이론의 발달과 역사사상의 형성 과정을 정리해본다.

## 여러들아! 이것만은 명심하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정시나 수시 어느 한 전형에 all-in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되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이냐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정시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면 수시전형도 지원하되 정시전형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지원을 하고, 언어, 수리, 외국어 그리고 사회탐구까지 매일 적정시간을 분배 해서 공부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끊임없이 푸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만약 수시전형이 더 유리하다면 수시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생각해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흔적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몇 번씩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생활리듬의 균형도, 공부의 균형도 모두 잊지 마시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 학과 부설 연구소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http://www.kuish.or.kr>

본 연구소는 비교사적, 보편사적, 학제간 역사 연구 방법을 개발·실천하고, 역사연구자 및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된 연구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연구 주제의 개발을 통하여 기초학문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가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기 학술 세미나, 국내외 전문가 초청 워크샵, 국제 학술제 등 학술대회. 둘째, 연구소 정기 기관지 발행, 학회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 출간, 역사 교육 및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기획물 출간, 역사 관련 고전 번역 출간 등 출판사업. 셋째, 일반인 및 초·중등,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역사 교양 강좌 프로그램 개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역사 대중화 사업 등 교육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역사학의 발전과 연구의 활성화에 힘써 온 역사연구소는 보다 폭넓은 국제 교류 및 학제간 연구활동을 통해 역사연구의 새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 동아리 & 학회 (학생 자치 활동)

**서양사학회** 2000년대 후반 학술활동을 위한 소모임으로 창립된 서양사학회는 잠시 휴식을 거친 후, 2014년 1학기 재창립되었습니다. 서양사학회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사유를 생산적으로 재구성하여 논리화·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 학기 서양사의 시기별, 주제별 관련 원서와 연구서를 선정, 탐독 및 학습합니다. 학회의 전반적인 진행은 기초발제에 이은 질의응답 및 전체토의로 이루어집니다.

**동양사학회** 동양사학회는 이전 사기강독학회 '서림'의 이름을 이어받아 사료뿐만 아니라 동양사와 현대 동아시아 이슈들에 대해 고찰, 토론을 나눠보기 위해 개편된 학회입니다. 주로 21C 떠오른 중국과 캘리포니아 학파의 입장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한국의 과거 18~20C 역사적 흐름을 돌아보고 현대의 사학도로써 그리고 민족을 이끌 고대생으로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해봅니다. 동양사에서 소재를 끌어와 역사적 사건들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이 현대의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역사적 시선', 즉 통찰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마추어리즘 밴드 낭만**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아마추어리즘 밴드 '낭만'은 매년 여름, 가을 두 번에 걸친 정기공연을 합니다.

**축구 소모임** 매주 축구 시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문과대학 축구리그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 해외 교류 현황

사학과에서는 매 학기 동양사, 서양사 외국인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원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교환학생 파견을 통한 학생들의 자체적인 해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학과와 미래 '인간'에 대한 모든 것

요즘 각종 실용학문이나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삶의 지혜와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학은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사학은 사라지지 않으며, 인간이 발전하는 이상 사학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블루오션

현재 우리는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수많은 영화, 드라마 등 여러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상상력을 가미한 이른바 팩션(Faction) 장르의 작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영화계, 게임 산업, 문학계 등에서 역사전문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길을 가는 후배에게

### 이렇게 다들 줄이야! 고교시절 생각했던 전공에 대한 오해

1. 무지무지 심오하고 어렵다.
2. 전공은 취업과 직결된다.
3. 입학 전에는 사학과에 입학하면 동양사, 서양사 중 하나만 선택해서 관련 전공만 듣고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것 또한 한정적이라 생각함.

## 졸업 후의 진로

**학계·교육계** 대학교수 및 교사

**연구소** 문화재, 문화, 역사분쟁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예: 국립문화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언론·출판·문화계** 신문·방송기자, 방송PD, 작가, 출판기획자, 집필가, 문화콘텐츠제작자, 극단연출 등

**정부·공공기관·기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문화재청, 지역 문화원, 국가기록원 등), 박물관 학예사, 판·검사·변호사, NGO활동가 등

## 기자, F학점도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으면 기자 자격 충분해



이번 주엔 **윤동빈(국어독문학과 05학번)** 씨가 **조선일보 편집국부국장 이종원(경제학과 77학번)** 씨와 **사회부 기자 김진명(중어중문학과 01학번)** 씨를 만났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되고 싶은 학생에게 신문이 사양 산업이라는 목소리는 부담입니다.

**김진명** 거꾸로 묻고 싶네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말하기' 때문인가요? 신문기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콘텐츠 전달 매체가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수입창출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누군가 정보를 발굴하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걸 직업으로 해야 해요. 누구나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 기자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나요

**김진명**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약자에 대한 연민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꼬집어내 정부나 사회의 도움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의 보람은 겪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이종원** 사건기자를 했던 4년 4개월 동안 250여개 시·군 중 240개를 가봤어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경험도 했고, 힘들었지만 매일 다른 일을 하니 20여년 동안 지루하다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또 기사엔 고민이 있어요. 취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기사를 쓰고, 토론하는 과정에는 기자 한 사람의 고민 이상의 것이 담겨있죠. 이것이 쌓여 언론인이 만들어져요. 언론인이 되고자 한다면 신문기자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윤동빈**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군사 전문기자로 입사할 수 있나요

**이종원** 처음부터 전문기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특정 분야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은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학 전문기자의 경우 박사과정까지 밟은 뒤에 입사하는 게 일반적이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입사한 뒤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해 스스로 자기 분야를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사내에 군사 전문기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분도 일반기자로 입사한 뒤 군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다가 전문기자가 됐어요. 말고 싶은 분야가 있더라도 처음엔 사회부 기자로 활동 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 왜 사회부 기자가 중요한가요

**이종원** 사회부는 숨겨진 사실을 꼬집어내야 해 결코 쉬운 취재가 많지만, '기자정신'을 키울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듣고, 이를 사회와 국가가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자의 참 역할이 아닐까요. 이미 안정된 분야를 취재해선 길러내기 힘든 자질이죠. 사회부 기자는 돕고 싶은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줄 수 있어요.

**김진명** 힘들지만 이걸 거치고 나면 어떤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겨요. 또 유명 인사서부터 쪽방의 독거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보면, 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환상이 깨져요. 사람이 결국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죠.

### 기자의 주관은 어떻게 배제하나요

**김진명** 수습기간에 그걸 배워요. 이를테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게 공무원의 태만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어떤 현실적 조건이 있진 않은지, 구조적 문제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법을 배우죠. 모순에 분노를 느껴도, 미담에 감동을 받아도 기자는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 분노와 감동을 전해야 해요. 특히 대립자가 있는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해요.

**이종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스크와 몇 번이고 토론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는 거죠. 취재를 하면서 느낀 기자로서의 소회는 칼럼으로 쓰면 돼요.

**윤동빈** 신문사는 학점을 안 본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이종원** F만 아니면 괜찮습니다(웃음).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자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능력이고 다만 시사 상식문제는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시험문제의 일례로 언론에서 초점이 됐던 한 헌법 조항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한산성과 송도 국제도시에서 자유주제를 취재한 뒤 기사를 쓰는 실무 테스트도 있었어요. 지원자끼리 토론을 할 때는 신문사의 논조에 맞추는 것보다 자기주장을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높은 평가를 받으니 유의하세요.

**김진명** 후배들이 늘 '학점은 얼마나 중요하고 토익은 얼마나 중요해요'라고 묻는데, 어떤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사고하고 글을 쓸지 고민했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볼지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았어요.

· 본문은 "고대신문 [www.kukey.com](http://www.kukey.com) 취업/직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